

아파트 단지... 대학·교회 지붕... 도심속으로 들어온 텃밭

‘서울형 도시텃밭’ 대상지 확대 46억원 투입, 5만2989㎡ 규모 자치구마다 각 1개씩 총 25개 복지관·병원 등에도 조성키로



도시농업 체험활동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외곽에 집중됐던 텃밭 조성 대상지를 도심 생활권으로 확대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도시농업 면적은 2011년 29헥타르에서 2019년 202헥타르로 약 7배 증가했다.

시는 지난 9년간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올해 5만2989㎡ 규모의 ‘서울형 도시텃밭’을 조성한다. 총 46억 2700만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도심 10분 거리의 생활권 텃밭을 확충한다. 자치구별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편차가 크고 특히 시 중심부에서 텃밭에 대한 관심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투리·옥상·상자·시범아파트 텃밭을 확대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할에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3억8900만원을 들여 자치구마다 1곳씩 총 25개(1만5000㎡)의 자투리 텃밭을 조성한다. 노지의 방치된 토지에 텃밭을 운영해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주책및 민간기업·종교시설·대학의 지붕 위 유휴공간 80곳(5817㎡)에는 옥상 텃밭을 가꾼다. 예상 소요 예산은 15억8400만원이다.

텃밭 조성이 어려운 공간에는 상자형 텃밭을 배치해 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총 사업비는 4억400만원이다. 연내 2만5000개(7500㎡)의 상자 텃밭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텃밭 조성에도 나선다. 지난해 4곳을 지원했고 올해 2개소(200㎡)에 1억6000만원을 보조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꿀 수 있는 텃밭도 만든다. 그동안 서울형 도시텃밭이 작물 재배와 수확에 국한

돼 공동체와 생태계 회복이라는 사업의 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시는 복지관·병원 등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곳(200㎡)에 1억원을 들여 무장애 텃밭을 설치한다. 시비를 지원받은 복지시설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닥을 정비하고 높임형 텃밭을 조성해야 한다. 도시농업 전문가나 심리치료가 강요하는 생태·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쇠퇴한 상업지역에는 도시재생형 텃밭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용산구 녹사평대로 240 일대 시설 1곳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1405㎡ 크기의 텃밭을 조성한다.

이외에 ▲생태친화형 어린이 텃밭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상자텃밭 시범사업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농업 체험 공간을 조성·운영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도시환경을 개선해 생태도시 서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생필품·생계비 등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시민에게 가구당 10만원 인파에 해당하는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물품에는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밀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이 포함됐다. 시는 신속한 전달을 위해 자치구 동주민센터가 물품을 구매해 각 가정으로 가져다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04명에게 2650만9550원어치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병원 근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보조한다.

/김현정 기자

4월부터 광화문 광장서 시위 열려도 버스 다닌다

4월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리더라도 버스는 양방향으로 계속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광장 조성 사업은 경복궁 앞에서 남쪽으로 뻗은 세종대로의 서쪽(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를 광장으로 만들되 동쪽(미 대사관 쪽) 차도는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사이에 동서로 뻗은 사직로의 현재 노선은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시는 세종대로 동쪽 차도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해 양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후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뚝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이후 사대문 안을 지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운행 제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하루 평균 1만5113대에서 단속을 개시한 올 1월 8833대로 41.6% 감소했다.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줄어 운행제한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시행으로 5등급 차량의 저감장치 설치 실적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과 12월을 비교하면 시의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4만8157대에서 20만 1321대로 18.9% 감소했다. 반면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차량은 6만5400대에서 7만 4309대로 22.7% 증가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진입·출입 지점에 설치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 지역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76만 5888대였고 이 가운데 단순 통과 통행량이 46.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GTX 개통땐 삼성역·서울역 등 주요 환승역 지옥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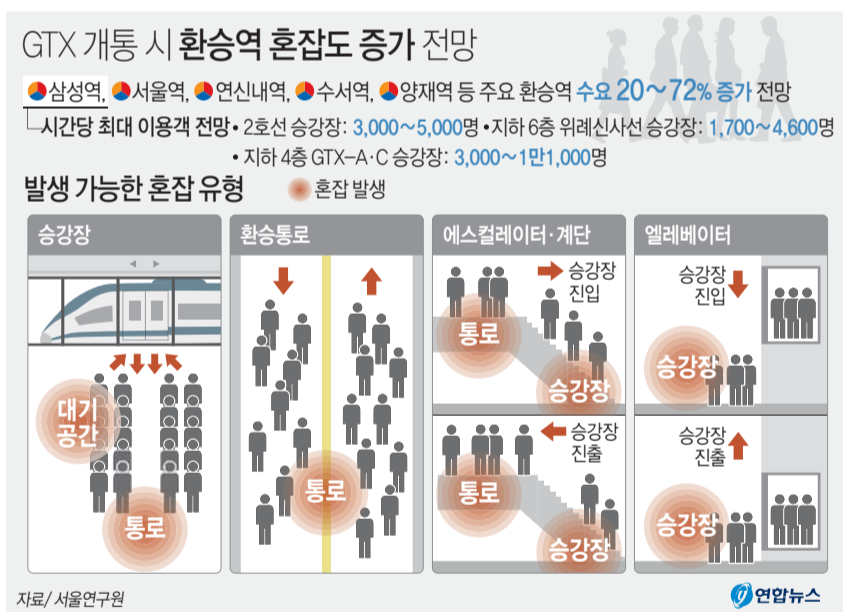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지하철 혼잡도 급증” 삼성역 시간당 최대 1만명 몰릴 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울시 도시철도가 개통한 후 삼성역과 서울역 등 주요 환승역의 혼잡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서울연구원의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과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GTX 개통으로 철도 수요가 분산되면서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TX와 연결되는 삼성역, 서울역, 연신내역, 수서역, 양재역 등 주요 환승역은 수요가 20~72% 늘면서 혼잡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역의 경우 2호선 승강장에 시간당 최대 5000명이 몰리고, GTX-A-C가 만나는 지하 4층 승강장에 3000~1만1000명, 지하 6층 위례신사



선 승강장에는 1700~4600명이 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혼잡 시간대 이용객을 모두 합하면 1만3000~1만7000명에 이른다. 보고서는 “삼성역은 현재 설계에 반영된 빠른 환승과 편리한

동선 계획이 혼잡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사람들이 몰리면 서 더 혼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10년 내 서울시 일대에는 GT

X와 경전철을 포함해 15개 노선, 약 356km의 철도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 이용자는 약 2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광역·도시철도가 추가되면서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수서역 등 주요 환승역은 9호선보다 더 혼잡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버스는 수요가 줄어 노선 조정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GTX-A가 개통하고, 면목선·난곡선·강북횡단선 등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가 모두 건설되면 수도권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약 6700회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서울시 운행 버스도 현재 7400대에서 5000~6000대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버스 노선 축소나 폐지보다는 경유지 변경 등의 조정을 우선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로 만든다

서울시 영화전문가와 팸투어 추진

영화 ‘기생충’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촬영지를 한데 묶어 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기존 ‘기생충’ 촬영지 탐방 코스에 이어 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연출작 ‘괴물’, ‘살인의 추억’, ‘옥자’, ‘플란다스의 개’ 촬영지를 엮어 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관광객에게 영화 촬영 장소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에는 안내 표지판과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국내외 봉준호 감독 팬 및 영화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팸투어도 기획하고 있다. 다른 유명 영화 속 서울 촬영지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팸투어로 관광 코스로 확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기생충’의 주요 촬영지였던 마포구 ‘돼지쌀수퍼’, 종로구 자하문 터널 계단, 동작구 ‘스카이피자’ 등으로 구성된 기생충 탐방 코스는 이미 작년



영화 촬영지(스카이 피자). /서울시

12월 서울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돼 조회 수 6만건을 돌파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은 “한

류 콘텐츠가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